



## 자율주행 시대의 안전한 연결을 설계하는 AI 무선 보안 선두주자 (주)지스

(주)지스는 AI와 무선 전파 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보이지 않는 무선 위협으로부터 세상을 보호하는 무선 보안 전문 기업이다. 20여 년간 축적된 주파수 예측 기술을 바탕으로 도청이나 무선백도어 해킹 등 고도화된 위협을 탐지하는 24시간 상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전파 환경의 노이즈 속에서 정상과 이상 신호를 AI로 정교하게 구분해내는 분석 역량은 침투 경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실효적인 보안을 구현하는 지스만의 핵심 경쟁력이다.

지스의 기술적 지향점은 보안 사각지대를 가시화하여 자율주행 시대의 '안전한 연결'을 완성하는 데 있다. 물리적 망분리까지 무력화하는 무선 스파이칩을 실시간 탐지하고 신호원의 위치를 추정하는 독보적 특허 기술은 금융권의 엄격한 검증을 통해 그 가치를 입증받았다. 2026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Alpha-V'를 필두로 차량 내부의 기밀 유출 방지를 넘어 모빌리티와 교통 서버, 인프라 간의 통신 안전을 책임지는 차세대 ITS 보안 모델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기술로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심공간'을 넓히는 것이 지스가 추구하는 기업 가치의 본질이다. 2025년 코스닥 상장을 발판 삼아 AI 기술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실험실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살아있는 기술'을 지향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해 왔다.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신뢰라고 믿는 지스는 한국형 ITS 보안이 글로벌 무대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와 파트너십 확장에 정진하고 있다.

“ AI 무선 보안 기술로 모두가 안심하는  
자율주행, 안전한 연결의 미래를 만듭니다.

- (주)지스 **한동진** 대표

”



**지스는 시와 무선 전파 분석 기술을 접목하며 보안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계신데,  
지스가 그리는 기술 혁신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무엇인가요?**

지스의 출발점은 무선 전파(주파수) 스펙트럼을 계측하고 비인가 이상 신호 징후를 판별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지속 연구하며 개발한 탐지 제품을 단순히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효율적인 관제운영 노하우까지 포함한 상시 방어 체계로 고도화할 수 있도록 연구하며 도청·무선백도어 해킹 등 무선 기반 위협으로부터 고객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차 무선으로 연결되고 있고, 이러한 일상은 이제 익숙한 모습입니다. 교통 인프라·차량·서비스가 촘촘히 연결될수록 편의성과 생산성이 확보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공격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침투를 제로로 만든다는 목표보다는, 침투 가능한 경로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며 시에 의해 더욱 효율적이고 정교하게 탐지·대응하는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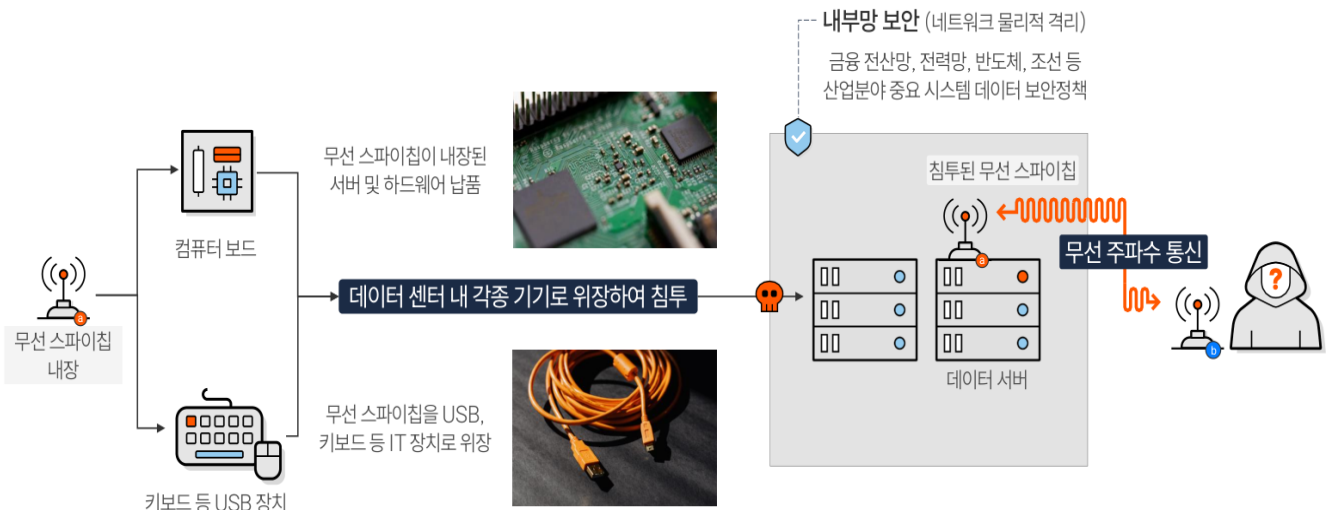
간략하게 부연하자면, 전파 환경은 장소·시간·설비 변화에 따라 노이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패턴을 학습하고 정상·이상 신호를 더욱 정교하게 구분하는 데 AI가 유효합니다. 또한, 운영 측면에서도 상시형은 결국 정확한 문제 파악과 대응 속도에 달려 있는데 AI는 신호 분석, 대응의 자동화 프로세스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최근 글로벌 보안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리적인 망분리까지 무력화하는 무선 스파이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지스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무선 스파이칩을 통한 무선백도어 해킹은 기존의 전통적 침투 수법과 달리, 기존에 수립된 정보보안 체계는 물론 망분리 정책까지 우회하여 정보 유출과 교란이 가능한 공격 수법입니다. 또한 최근 망분리 완화 등 정책 기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내부망을 노린 신종 정보 유출 수법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지스만의 기술적 강점은 무선백도어라는 보안 사각지대를 겨냥한 국내 유일의 전문 탐지 체계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신한·KB국민 등 1금융권에서도 해당 위협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으로 엄격한 개념검증(PoC) 절차를 거쳐 무선백도어 해킹 탐지시스템 Alpha-H를 도입하는 등 기술력을 입증 받았습니다.

#### 무선백도어 해킹 공격을 위한 무선 스파이칩의 침투 경로 예시



금융권 데이터센터(IDC), 서버실과 같은 공간은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대규모 서버와 설비를 보유한 큰 공간입니다. 이러한 곳에 서버 내부 부품으로 유입되거나, 전산 용품으로 위장해 반입된 무선 스파이칩을 사람이 직접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무선 스파이칩의 이상 신호를 실시간 탐지하는 동시에 해당 신호원의 위치를 추정하는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 2026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Alpha-V'가 향후 자율주행 및 ITS 인프라 보안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올해 출시 예정인 Alpha-V는 차량 내부에서 발생 가능한 도청과 휴대전화 위장형 녹음기 등을 통한 무단 녹음을 방지하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Alpha-V의 역할을 자율주행·ITS 보안 관점에서 보면, 차량을 이동하는 사적 공간인 동시에 움직이는 기밀 보관소로 간주하고 그 내부 정보를 보호하는 장치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영국·이스라엘·폴란드 등 해외 각국에서도 최근 중국산 차량 내부의 도청, 통신 모듈·부품을 통한 무선백도어 해킹을 우려하며 사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대화나 기밀 언급 등이 외부 통신으로 유출되거나, 무단 녹음으로 인해 유출되는 사태가 가장 우려되고 있습니다. Alpha-V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정보 유출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차량 보안은 차량 내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시대로 갈수록 차량은 외부 교통·통신 인프라와 상시 연결되는 하나의 연결점이 되고, 차량 내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외부의 시스템과 끊임없이 통신합니다. 결국 미래 차량의 보안은 차량을 넘어 인프라 간 연결 구간까지 확장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때 보안은 어떤 장치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비정상 무선통신 신호가 나타나는지를 상시 탐지하고 대응하는 운영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도로 인프라와 통신 환경의 안전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순이 지향하는 안전한 연결이라는 가치 지향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Alpha-V가 출시 이후에도 꾸준한 고도화를 통해 미래에는 모빌리티 보안 체계의 연결 구간에서 활약하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코스닥 상장 이후 지슨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투자 분야와 기업가치 제고를 어떻게 이뤄내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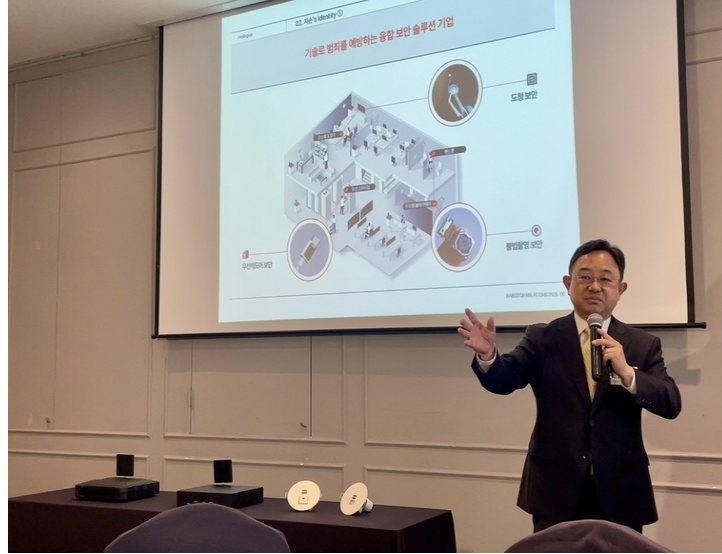
상장 이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슨이 잘하는 것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다음 성장 동력을 빠르게 시장에 안착시킨다는 목표입니다. 지슨은 무선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고,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 분야에 도전하고, 지금은 자율주행·ITS 인프라 관련 연구개발과 현장 사업을 병행하면서 적용 영역을 점진적으로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크게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기존 핵심 기술을 AI와 결합해 더 정교하게 만드는 방향입니다. 무선 전파 환경은 분야와 현장마다 모두 다르고, 노이즈와 같은 방해 요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제품의 단순한 탐지 성능뿐 아니라 탐지의 신뢰도와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AI를 탐지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제품의 정보 분석부터 관제 운영 과정에서의 정확도와 운영 자동화까지 확대시키는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규 제품의 상용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차량용 커뮤니케이션 보안 시스템 Alpha-V처럼 차량과 같은 새로운 공간에서의 보안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완성도와 양산 준비, 그리고 초기 레퍼런스 확보에 더욱 집중하려고 합니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지슨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좌)기자간담회에서 상장 후 비전을 발표하는 한 대표 (우)지슨은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으로 조달청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상장사는 실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실적이 안착되고 지속 가능하다는 근거를 시장에 보여주고 신뢰를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제품 품질과 현장 운영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내부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쌓이는 레퍼런스, '신뢰'가 지슨의 기업가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글로벌 보안 시장에서 지슨의 기술력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형 ITS 보안 기술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지슨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희 지슨이 글로벌 무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목표는 명확합니다. 자율주행·ITS 환경에서 '안전한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 보안 모델을 표준 수준으로 만들고, 그 모델을 제품과 운영 체계까지 포함해 해외에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통 시스템은 차량과 인프라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환경으로 진화할수록, 공격자는 네트워크만이 아니라 무선 구간까지 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결이 늘어날수록 보안은 상시형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관점을 해외 시장에서도 설득력 있게 증명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해외 파트너사·기관과 함께 현지 국가별 환경에서 검증 절차를 수립하고, 실제 운영에서 도출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슨이 강점을 가진 무선 전파 분석 기반 탐지·대응 역량을 ITS 인프라와 모빌리티 영역까지 확장해 현장 운영에서 도입 가능한 보안 체계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결국 저희가 해외에서 만들고 싶은 성과는 단기 계약 몇 건이 아니라, 한국형 ITS 보안이 하나의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스마트시티·자율주행을 추진하는 국가와 도시들이 안심하고 연결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슨은 기술 고도화와 신규 제품 투자를 지속하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단계적으로 넓혀가겠습니다.



한동진 대표가 2019년 해외 전시회에서 부스 방문 고객에게 자신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있다.

## 지신이 추구하는 조직 문화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며, 이러한 철학이 실제 기술 개발 방식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요?

저희 지신의 조직 문화의 중심에는 '현장에서 통하는 기술'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안은 실험실이나 연구소에서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전파 환경이 복잡하고 예외 상황이 많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신은 기술을 설계할 때부터 현장 계측과 탐지 알고리즘을 결합한 구현을 전제로 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관제 운용 노하우까지 함께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영향을 받아, 지신 임·직원은 제품을 단순한 단말기 장비로만 여기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바라봅니다. 이에 하드웨어 단말기·센서·소프트웨어 등 핵심적인 시스템 구성 요소를 외주 방식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제품을 직접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긴 호흡의 기술 투자입니다. 저희 지신이 창업 초기에는 매출이 거의 없던 기간에도 기술 개발에 집중했고, 그 경험이 지금도 겹으로 드러나는 단기 성과보다, 그 이면에서 쌓이는 시간과 집중력을 중시하는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보안은 불안과 위협을 다루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조직이 과잉 대응이나 과소 대응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를 강조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상장 준비,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투명경영과 내부통제 고도화, 인재 확보, 그리고 임·직원 동기부여 체계를 함께 강화해 왔습니다. 실제로 상장 준비 과정에서 기술기업에 요구되는 투명한 경영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했으며, 과거 코넥스 기업공개 이후에는 우리사주조합 구성, 임직원 대출 혜택, 유연근무제 도입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습니다. 조직이 장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과 프로세스가 함께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경제 제23회 세계지식포럼(WKF)에서 한동진 대표가 주요 연사와 토론을 하고 있다.

### ‘안전한 연결’을 책임지는 보안 전문 기업으로서 자신이 독자들에게 기억되고 싶은 모습은 무엇인가요?

미래의 교통 환경은 한 마디로 ‘연결의 밀도’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은 센서·통신·컴퓨팅이 결합된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진화하고, 도로·신호·관제는 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되며, 자율주행은 차량 단독 기술이 아니라 차량과 인프라, 서버 간의 상호작용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연결이 늘어나는 만큼 공격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보안 사고가 증가하고 기존 보안 체계를 우회하는 방식의 정교한 수법이 등장하는 흐름 속에서, 보안의 전제가 이미 침투를 가정하는 제로 트러스트로 이동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미래 환경에서 상시형 보안 제품을 바탕으로 하는 지슨이 세상을 안전하게,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며 ‘기술로 범죄를 예방하는 AI 융합 보안 솔루션 기업’으로 더욱 많은 분들께 각인 되었으면 합니다.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공간’을 넓혀 나간다는 목표를 ITS·자율주행 인프라까지 확장하여, 편의성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이 불안이 아니라 신뢰라는 기반 위에서 작동하도록 변화시키는 기업으로 인정받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